

## Session 10 복수와 자기 방어를 거절함 (마 5:38-42)

### (Refusing Retaliation and Defensiveness)

#### I. 도입

- A. 이 장에서, 우리는 거절해야 할 다섯 번째 유혹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 유혹은 우리를 모욕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방어적이 되려는 것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도 많은 선한 것을 잃고 있다.
- B. 우리는 이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를 행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행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간과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 II. 복수와 자기 방어의 영을 거절함 (마 5:38-42)

- A. 우리는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방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마 5:38-42).

*38 또 높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보복함으로)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 5:38-42)*

- B. 예수님께서서는 네 가지 예를 통해 보복과 자기 방어를 거절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셨다. 각각의 네 가지 예들은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 혹은 작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자들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를 100 가지라도 더 들을 수 있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모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규칙을 설명하거나 모든 상황을 예로 들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예들에서 드러나는 원칙들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 산상 수훈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닌,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르침들을 기계적이고 유연성 없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 C.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를 잘못 가르쳤다. 하나는 율법이 보복을 명령하고 있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를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모세는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집행하지 말고, 법정을 통해 악한 자들을 다스릴 것을 가르쳤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영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겼다.
- D. **높은 눈으로:** 여기서의 원리는, 처벌이나 형벌이 저지른 범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출 21:24; 레 24:20; 민 19:21). 이는 너무 관대해서도 안되고, 너무 가혹해서도 안됨을 말하고 있다. 이 율법은 정의(justice)를 정의(define)했으며, 보복을 제한했으며, 선한 자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했으며, 심판관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릇된 영으로 너무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막았으며, 사람들이 법정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율법을 시행하는 것을 막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눈을 찌른 경우라면,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서는 안 된다. 형벌로 어떤 이의 신체를 절단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금전적으로 보상한 기록들은 찾아볼 수 있다.

- E. 모세의 율법은 보복을 명령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원한 없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복의 영(복수)과 자기 방어의 영(원한)으로부터 자유하며 살기를 원하셨다.

**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 19:18)**

- F.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의 헬라어 동사(*anthistimi*)는 **대적하다(resist)**로 해석되었는데, **반대하다(oppose)** 또는 어떤 이에게 **저항하다(withstand)**, 혹은 **반격하다(fight back)**를 뜻한다. 즉, 우리는 우리를 모욕하거나, 소소한 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똑같이 갚아주려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합법적인 법정에서 일어나는 처벌을 반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 G.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악한 자에 대해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며(자의적으로 율법을 적용하지 않음), **올바른 영**으로 대하며(자비로운 겸손으로), **올바른 기준**(작은 불합리함들을 받아들여줌)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 구절은 종종 성경의 평이하고 명확한 가르침과 모순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해석되곤 한다. 성경의 말씀은 항상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서 올바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H. **평화주의:** 이 구절은 평화주의(무력 사용을 금하는 것)와 관련되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을 군인, 경찰, 판사의 존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가르침으로 해석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악한 자에게 무력(법정, 군대, 경찰 등)을 전혀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악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종)들이다(롬 13:1-7). 전쟁, 경찰, 감옥 등은 타락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야 한다. 아내나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은 언제나 악으로써 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 I.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며(눅 22:36),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으며(마 18:15-17), 자신을 치는 관리를 대적하셨으며(요 18:22-23), 회초리를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요 2:14-16).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악행을 대적했다(행 5:1-11). 바울은 올바른 방법으로 형제를 다루는 부분을 언급했다(고전 5:1-11; 6:1-8).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대적했으며(갈 2:11-14), 정부의 권위에 호소했다(행 16:37).

- J. **악한 자:** 예수님께서서는 악한 목적과 동기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4 가지 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 K.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보복과 자기 방어의 영과, 그리고 우리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며, 이와 관련된 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불평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신다. 어떤 이는 항변하기도 한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역자주: 여기서의 원칙은 세상의 원칙을 말한다).” 그렇다, 문제는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갈 것인가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것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할 때에만 이를 행해나갈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작은 문제에 대해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종의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과는 다르다(이로 인해서는 쓴 마음만 남는다).

- L.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작은 일들로 인해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들은 지속적인 곤란함, 즉 올바르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땅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올바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괴로워하게 된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양측은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올바른 대우를 받거나 불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한 하찮은 요구에 묶여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 이 일을 풀어버릴 수도 있다. 두 사람이 자신의 확고한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그들의 관계를 깨어지고 쓴 마음만 남을 수도 있다.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눅 10:40-41)*

**III. 다른 편 뺨을 돌려대기 (마 5:39)**

- A.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신체적인 상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욕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오른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상대방은 왼 뺨을 맞는다. 오른 뺨을 때리는 것은 보통 손등으로 때려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줄 뿐, 신체적인 상해는 입히지 않는다. 이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적인 학대를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보복하지 않되, 단지 법정 밖에서 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넘어서는 원칙을 적용하신다.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마 5:39)*

- B.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보복하지 말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께 소중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모욕을 은혜 가운데 견딜 것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이다(벧전 2:23).

*23 (예수님께서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23)*

- C.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이 실제로 그 모욕 이상으로 우리를 어쩔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참을 수 있다. 모욕을 당하고도 보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기에, 이는 다른 이들 안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모욕은 말이나 눈길을 통해서도 온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쉽게 실족치 않기를 원하신다.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4-21)*

- D. 당신이 정의를 지지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모욕을 받는다면, 주께서 당신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 (마 5:11-12)*

#### IV. 속옷 때문에 고발당함 (마 5:40)

- A. 우리는 셔츠와 같은 우리의 작은 소유를 얻기 위해 법적인 체계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의 속옷은 셔츠나 망토 같은 외투를 말한다.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마 5:40)*

- B. 여기서는 공격이 작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 누가 \$100(10만원 정도) 정도 밖에 안 되는 셔츠나 코트 때문에 고발을 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즉, 여기서 고발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 C. 여기서의 소송은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집이나 사업에 해를 입힐 정도의 소송이 아닌, 소액 소송을 말한다.
- D. 만일 악한 자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액수로 고소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그에게 줘버려라. 이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 E. 우리는 우리의 작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자기방어적인 면은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드러날 수 있다.

#### V. 억지로 오 리를 같이 갈 것을 요구당함 (마 5:41)

- A. 로마 병사들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병사의 장비를 오리(1 마일 정도, 1.5~2.0km 정도) 정도를 옮기도록 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법적인 요구를 싫어했는데, 이것이 불편했고, 화가 나는 일이었으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적인 요구에 순종하되, 적절치 않은 영으로 순종했다.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마 5:41)*

- B. 이는 우리의 시간과 개인의 권리가 정부로부터 침해 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오리를 걸어가는 데는 15분 정도가 걸리며, 또 오리를 더 가기 위해서는 총 30분 정도가 걸린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편한 요구로 우리의 스케줄에 피해를 입힐 때,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기 쉽다.
- C. 만일 악한 자가 법을 이용해서 당신이 불편한 일을 하도록 만든다면, 그 일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십시오. 이는 실제로 우리의 생계에 영향을 끼치기보다,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다. 이 구절은 정부나 권세자가 작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런 분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일에 잡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서 책망하신 태도이다.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해야 한다.
- D. 만일 권력을 가진 자가 작은 일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요구할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기 쉽지만, 우리는 불의에 대해 인내함으로 참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예로 국세청(IRS)이나 경찰 등의 정부가 요구하는 일들을 들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것들에 대해 거부함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정부에 고용된 이들처럼 일하는 것이 아닌, 작은 불편을 참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 VI.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 5:42)

- A.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에게서 빌려가는 것을 허락해야 하며, 관대한 마음으로 줘야 한다. 만일 어떤 자가 필요한 것이 있고, 당신에게 빌리고자 구한다면 그들이 쓰도록 하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42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 5:42)*

- B. 예수님께서서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돈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여기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자에 대해 쓴 마음과 자기 방어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언급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서는 안되며,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
- C. 이 원리에 대한 적용은 배경을 잘 이해하고, 이 부분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비교함으로써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른 자가 먹는 것을 허락치 말라고 명령하고 있으며(살후 3:10), 보증이 될 때의 어려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잠 11:15; 17:18; 22:26). 직업적인 걸인이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고,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할 때 그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게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살후 3:10)*

- D. 보복과 자기 방어를 거절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산상 수훈의 삶을 살아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마 5:13).